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치아·잇몸뼈·턱뼈 상태 '족집게 진단'



건강 바로 알기 치과 파노라마영상 검진

전남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이재서 교수

#K(9)군은 앞니가 제때 나오지 않아 치과를 찾아왔다. 촬영한 치과 파노라마 영상에서 매복된 과잉치(정상적인 치아 개수를 초과해서 더 만들어진 치아)가 영구치 앞니가 나올 자리를 가로막아,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제때 치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는 치과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해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것인지, 매복 과잉치나 다른 종양이 생겨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P(22)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다. 촬영한 치과 파노라마 영상에서 사랑니 주위에 생긴 물혹이 관찰되었다. 물혹과 관련된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치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물혹이 턱뼈에서 자라고 있음을

영구치·사랑니·치주질환 등 방사선 영상 검진...각종 질환 치료에 효과적
생애 두 번 이상 검진 반드시 필요...치과의사 판독능력도 효율성 중요 요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P씨는 물혹과 사랑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L(45)씨는 양치질할 때 피가 나고 이가 흔들려 치과를 찾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참을만하다고 여겨, 치료를 미루다 치과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환자는 잇몸이 부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촬영한 치과파노라마 영상에서 잇몸과 아래턱 잇몸뼈가 많이 녹아 내린 것이 관찰되었다. 심한 치주염이 생겼고,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은 성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만 40세와 만 66세 국민들은 맞춤형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치과와 관련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항목은 구강검진이 있다. 그러나 구강검진은 육안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건

강보험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상위질병) 통계자료를 보면 잇몸질환은 전체 외래 진료환자 2위(1560만명), 치아 우식은 6위(587만명)를 차지하였다.

치아 뿌리와 잇몸뼈는 잇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촬영이 꼭 필요하다. 구강 검진만 하는 경우보다 치과 파노라마 영상 검사와 함께 이뤄지는 구강 검진이 치과관련 질환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사랑니가 나오는 20대, 치주 질환이 심해질 수 있는 40대, 골밀도가 약한 60대에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진은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매복된 치아나 잇몸뼈와 턱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파노라마 영상은 치아, 보철물의 상태 및 턱뼈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검진 방법이다. 또한 촬영된 치과 파노라마 영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판독능력도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남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이재서 교수가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환자의 파노라마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전남대치과병원 제공>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애 두 번 이상 필요한 치과 파노라마 영상 검

진, 내 치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필수적인 방법이

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AI 기반 치매예측·조기진단 기술개발 속도낸다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조선대 치매코호트연구단
광주형 디지털 뉴딜 연구개발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AI 기반의 치매예측과 조기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손을 잡았다.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안기석)은 광주형 디지털 뉴딜 연구개발 공동추진을 위해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

연구단(단장 이진호)과 지난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형 디지털 뉴딜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한 연구성과 연계와 환류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부처공동기획연구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화, 지역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 지원을 통해 지난 7월 과기정통부의 '2020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공동기획 대상과제로 선정된 'AI 기반 치매조기예측 실용화를 위한 치매 정밀의학 DB 플랫폼 구축 공동기획연구'의 주관기관인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협력, 최종 사업선정을 위해 공동기획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 공동사업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AI(인공지능)기반의 치매 조기예측 및 실용화를 위해 지난 8년 동안 광주지역 7000명 이상의 세계최대 생체으로 빅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최근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국비 18억원)에 선정되는 등 이번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AI 기반의 치매예측과 조기진단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안기석 원장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R&D를 적극 발굴 지원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최첨단 망막질환 검사장비 도입 눈 건강 최우선

아이안과 진월본점
'망막센터' 문 열어

우리 눈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재생되기 어려운 신체 조직이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당뇨병 등의 영향으로 안과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40세가 넘으면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 3대 실명 질환이 크게 증가하는데, 우리 시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망막은 안구를 카메라로 비유했을 때 필름에 해당하는 중요한 신경조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안과 정기 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질병관리청·대한안과학회가 공동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에서 노인성 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병 환자 가운데 당뇨망막병증이 19.6%의 유병률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유병률과 반대로 안과 검진은 녹내장 25.8%, 당뇨망막병증 23.5%, 노인성 황반변성 3.5%에 그쳤다. 문제는 3대 실명 질환을 늦게 발견할 수록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행히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검사를 받으면 3대 실명 질환을 80% 정도 막을 수 있다.

환자 발병률 증가에 따라 망막 관련 질환



아이안과 진월본점 6층에 개소한 '망막센터'.

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아이안과는 지난 7월 아이안과 진월본점 6층에 '망막센터'를 개소하여 한국망막학회 정회원 최광주 원장과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지성 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어 '백내장 망막수술 장비(Alcon Constellation)'와 황반변성 및 당뇨망막병증에서의 망막 및 맥락막의 혈관상태를 비침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간섭단층

혈관촬영기(OCTA)를 추가 도입해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수술, 최소한의 통증으로 환자의 소중한 눈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아이안과 정지성 원장은 "4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권한다"면서 "시민의 눈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